

새들의 지저귐으로 이 한해를 조용히 마무리 지웁니다.

소박하게, 대자연의 흐름속의 한찰나에 지나칠 자아를 발견하며, 이 한해도 겸허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8 올림픽을 치를 호기에 즈음하여 환경관계 분야에서는 지난해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용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온 한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環境廳이 環境部로 승격될 가능성에 관한 소식은 環境人의 한사람으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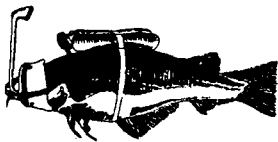
척이나 기대부푼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신진기술인력을 배출하여야 하는 교직원으로서의 비전은 그리 밝고 넓게 열리지지만은 않음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개학이 되면 해마다 전국적으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환경공학도들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보다 우수한 인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무수한 사랑의 채찍질을 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제자들

의 취업문호가 새해에도 선명하지만은 않으니 마음 한편으로 어두운 그들이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얻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모든 여건이 저절로 이뤄지지만은 않다는 대 우주의 진리를 되새기며 맑은 제주의 대기를 가르고 힘차게 솟구치는 아라동산의 새해 아침을 맞으려 합니다.

話·題



고소득작물재배, 보온못자리 용 등으로 농가에서 사용량이 크게 늘고있는 비닐이 해마다 대량으로 버려지고 있으나 처리할 시설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비닐을 비롯한 합성수지제품은 일상 생활용품으로부터 농업, 공업, 유통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쓰임새가 다양하고 편리해 매년 생산량이 늘고 있으나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쉽게 썩거나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폐비닐, 점차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 태워도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 발생

비닐등 폐합성수지는 땅에 묻히면 대지의 균제나 침하를 일으키고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한다. 또 하수구나 강에 버리면 연안양식, 어패류 성장장애는 물론 상·하수도 및 수력발전시설의 고장까지 일으킨다. 더구나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태우면 염화수소등 유독가스와 매연공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폐합성수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수집·처리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3만 8천 t의 폐합성수지가 발생했으나 수집량은 74%인 32만 4천 t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에서 보온막으로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MDPE) 폐수지는 지난해 4만 2천 9백 t이 발생했으나 이중 8천 2백 t을 자원재생공사가 유상매입해 t당 7만 5천원의 비용을 들여 무공해 소각처리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지거나 태워져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연간 4천 t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수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하이덴 폐수지 재생처리공장 기공식을 가졌다(本報 뉴스 참조).*